

다 잃으셨습니까?

마가복음 5:25,26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인생이란 어떠한 성취를 위하여 씨름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취는 기쁨과 행복을, 상실은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기 아주 불행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25,26]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²⁶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알게 되는, 아니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1. 우리는 무엇을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물질(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므로 있을 때 잘 지켜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요한삼서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고린도전서 3:14,15]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¹⁷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에베소서 5:15,16]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¹⁶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잠언 22: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5:18]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겨워하라

2. 다 잃은 것 같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보면 다 잃은 것 같습니다. 건강도, 세월도, 재산도 잃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라 하여 격리 대상자입니다. 마을을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가족도 잃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다 잃었다고. 너는 이제 끝이라고. 그러나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다 잃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것을 통해 일하시고, 남은 자를 일으켜 사용하십니다.

[열왕기상 17:12]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사야 6: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6: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나찌 수용소에 끌려가 부모와 형제, 아내를 잃고 유일하게 살아 남은 유대인 정신 의학자 빅터 프랭클이 그의 저서에서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우주에 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즉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죽음의 수용소(A Man's Search for Meaning)』에서)

3.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가진 자입니다!

여인은 가진 것들을 잃은 뒤에야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에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때에는 들리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 잃었다 싶었을 때, 예수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자기에게 남아 있는 그 생명, 그 호흡, 그 소망,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매...” 건강을 회복합니다. 이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잃은 사람은 다 잃은 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잠언 8:35]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잠언 3:15-18]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¹⁶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¹⁷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¹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로마서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4:13,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¹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 보세요.